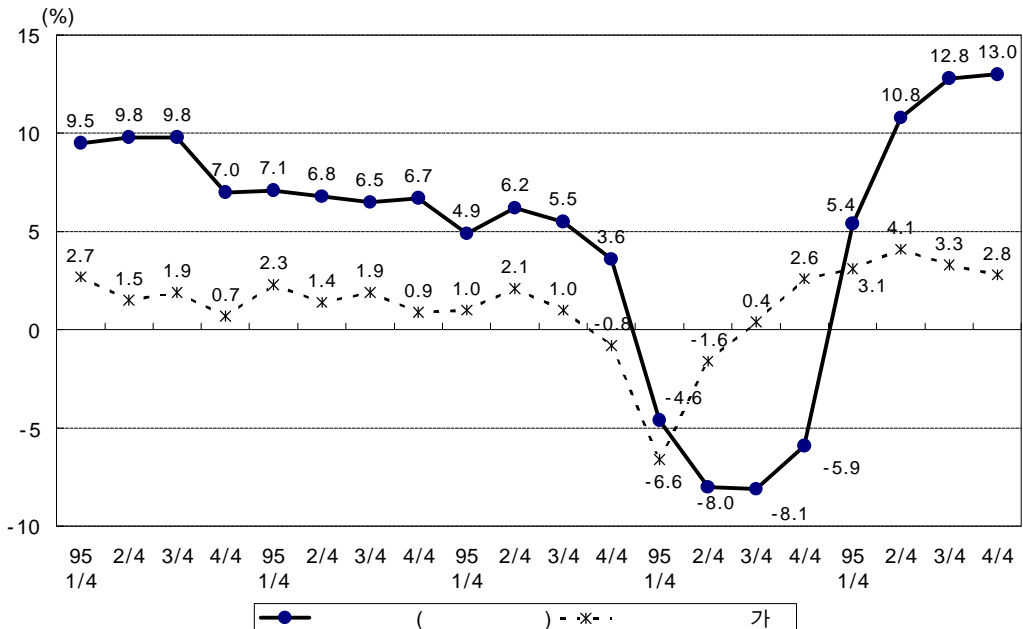


국민 계정

- 99년 중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10.7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
 - 제조업은 반도체, 컴퓨터, 통신기기, 자동차 등의 내수 및 수출 호조로 중화학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공업 생산도 회복세를 보여 21.8%의 성장률을 보였음
 - 서비스업은 통신업,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11.7% 증가
 - 건설업은 공항, 철도, 전력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이 증가하였으나,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건설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10.1% 감소하였음
-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
 - 계절 조정 국내총생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1/4분기 3.1%, 2/4분기 4.1%, 3/4분기 3.3%, 4/4분기 2.8%를 기록,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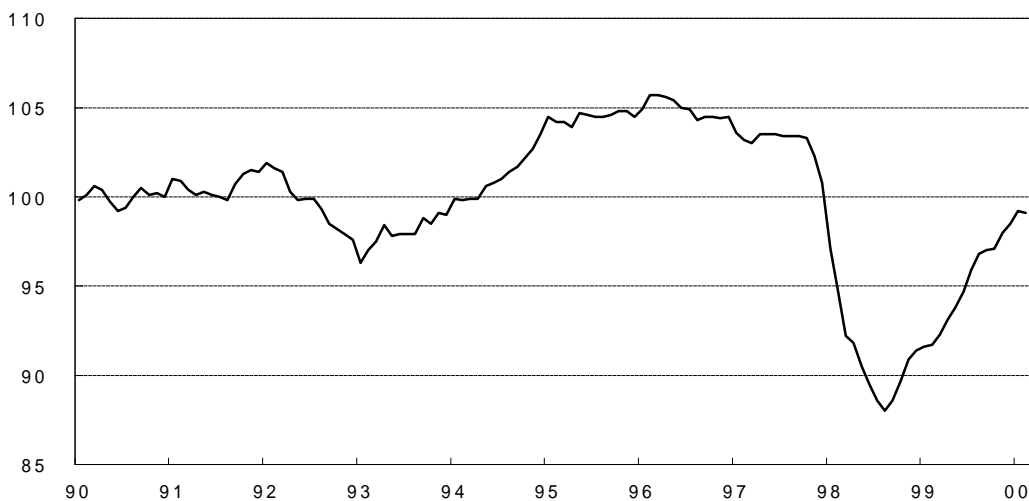
< 경제성장률 추이 >



산업 활동

- 2월 중에도 생산, 소비,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상승 속도는 다소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(생산) 반도체, 사무회계용 기계, 자동차의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, 설비 투자용 기계 장비, 전기 기계 등이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5.4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
 - (소비)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매출 호조를 바탕으로 도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3.3% 증가하였으나, 1월의 16.6%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음
 - (투자) 민간 부문의 발주 증가로 국내기계수주가 19.8% 증가하는 등 꾸준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, 국내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주택 건축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.5%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.1p 감소하여, 경기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한편, 향후 6~7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2.3%p 하락하는 등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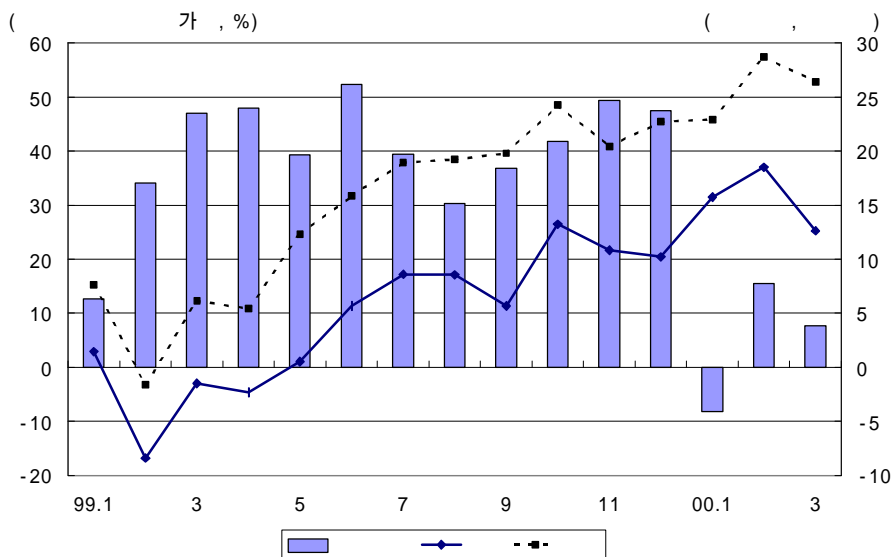
<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>



대외 거래

- 3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.3% 증가한 146.0억 달러를 기록하여, 99년 6월 이후의 두자리수 증가세를 9개월째 지속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
 - 미국,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, 일본과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컴퓨터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
 -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국 경기 회복과 함께 개도국들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세계 경기가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
- 3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2.8% 증가한 142.2억 달러로, 월간 수입 규모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
 - 유가 강세로 인한 에너지 수입 단가 상승,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수입 급증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
 - 무역수지 흑자는 3.8억 달러로 전년 동월의 23.5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
 - 수입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, 연말까지 무역수지는 정부 목표액인 120억 달러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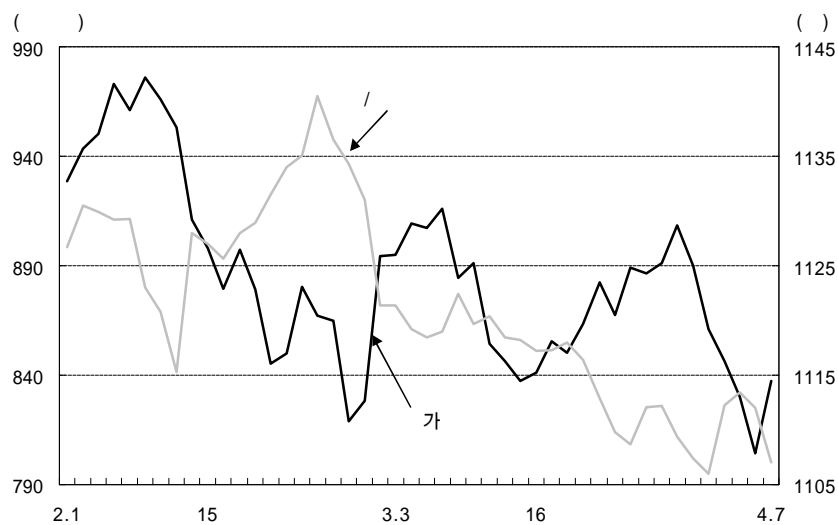
<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>



금융 시장

- 3월 중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투자금의 대량 유입으로 하락세 지속
 - 정부의 정책적 달러 매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달러 수요 요인이 없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2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량 유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1,106원까지 하락
- 국내 금리는 총선후 통화 긴축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안정 의지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하락
 - 3월 이후 고성장에 따른 경제지표가 시장참가자에게 주는 불안감과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금리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음
-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전환, 투신권 등 기관투자자의 매수 기반 약화에 따른 수급여건 악화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
 - 3월 초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최근 반도체 주식의 상승세에 힘입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800대선에서 다시 반등
 - 분리과세 상품의 허용 등 투신권의 매도를 억제할 수 있는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2차 금융 구조조정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주의 하락세는 억제하기 힘든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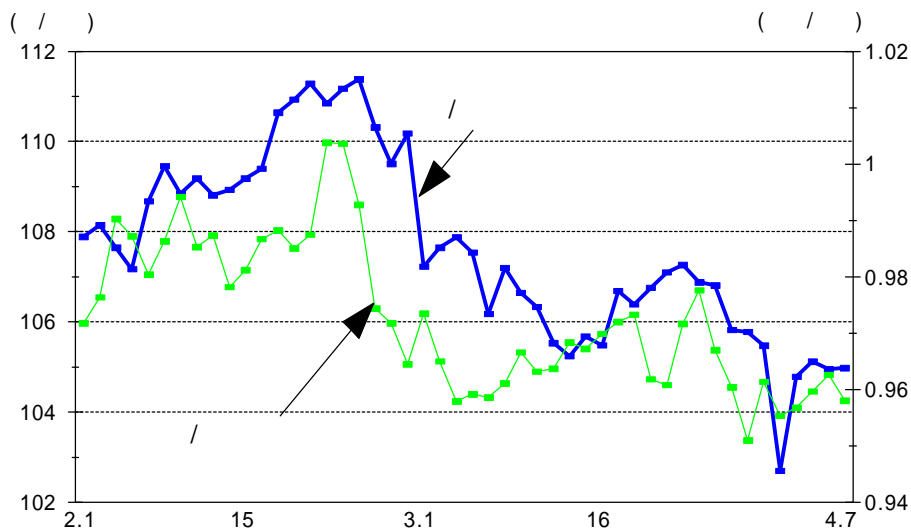
< 원/달러 환율 및 주가 추이 >



국제 경제

- 미국 경제는 실질 수입 증가와 활발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고속 성장중임
 - 폭발적인 유가 상승과 점진적인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와 자동차 판매는 6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
 - 다만 나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경기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여 큰 폭의 조정장세를 나타냄
- 일본 경제는 침체와 회복 신호를 엿갈려서 보여주고 있어 성장이 불투명함
 - 과도한 재정적자와 소비 지출 회복 지연이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,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가 일본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높여줌
- 엔/달러 환율은 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 금융기관 및 기업의 달러화 자산 매각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
 - 일본 중앙은행의 단기 경기예측보고서인 短觀지수가 경기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엔화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
 - 다만 급격한 엔화 강세를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추가 하락을 제약

< 엔/달러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 >



(거시경제실)